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정보

Creating a
Corporate IR
Together

노다지 MAGAZINE

VOL. 06

발행일: 25년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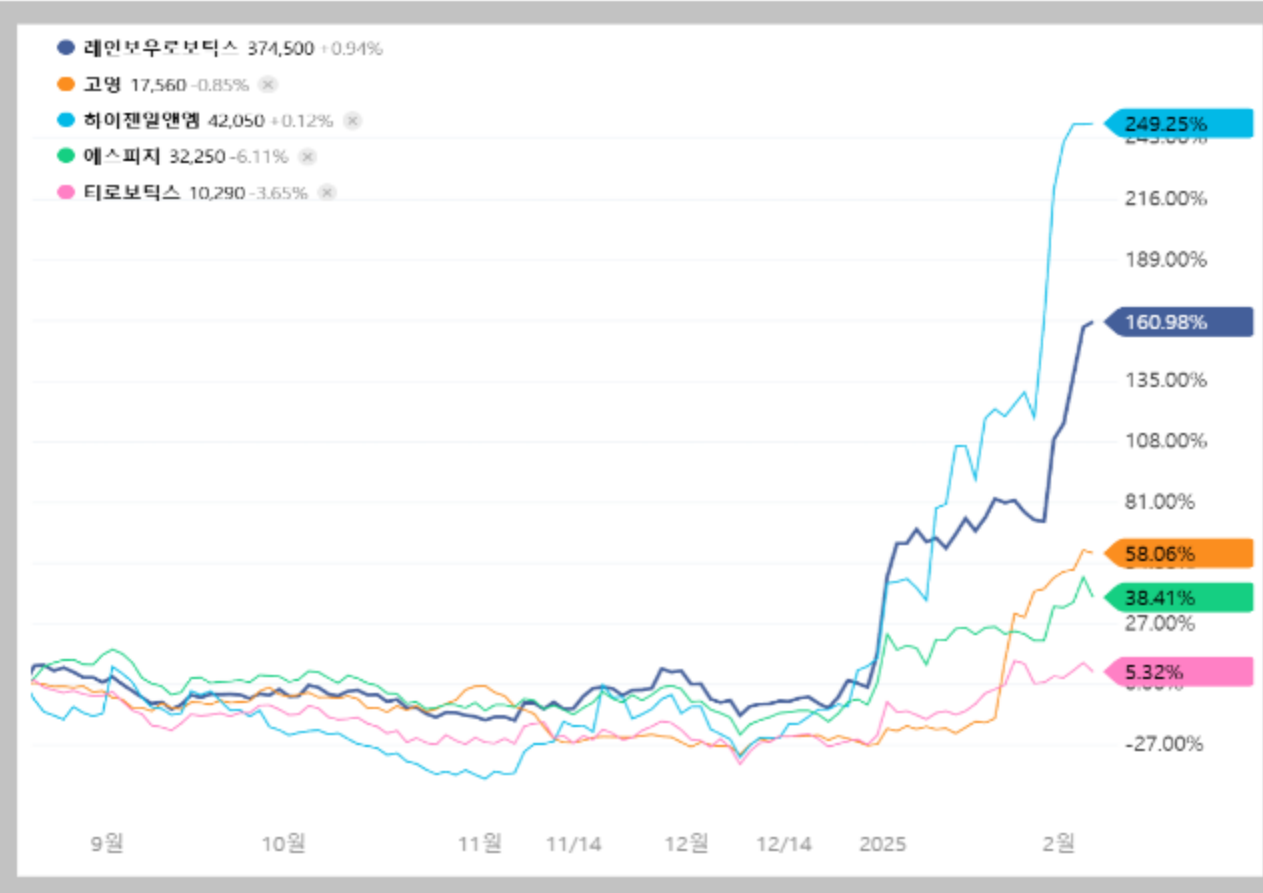


로보틱스

나만 없는 로봇 관련주 튜아보기



MARKET NEWS



AI 투자의 종착지는 로봇! Physical AI 시대가 다가온다.

유재현 기자 | 25.2.6 | 와이스트리트 뉴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챗봇, 이미지 생성 모델 등 다양한 형태의 AI 서비스가 속속 시장에 등장하면서, AI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역시 크게 주목받는 중이다.

기존에는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고성능 GPU 등의 인프라 구축이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것'을 넘어, AI가 실물 세계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로봇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테슬라(Tesla)가 추진 중인 '옵티머스(Optimus)' 프로젝트와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이 강조하는 'Physical AI(피지컬 AI)' 개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AI를 실제 물리 공간에서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MARKET ISSUE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액션 기반 컴퓨팅 혁명의 시작

25.2.5 베타뉴스

- 애플·리비안 출신 필 베이셀은 25년마다 혁신적 기술이 등장한다고 주장
- 다음 혁신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될 것이라 전망
- 옵티머스는 인간의 행동을 자동화하는 '액션 기반 컴퓨팅' 시대를 열었음
- AI·고성능 센서·정밀 모터 기술을 갖춘 자율 로봇으로 발전 중임
- 머스크는 로봇이 제조·물류·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강조함

딥시크뿐만 아니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도 美패권에 도전

25.2.6 연합뉴스

- 중국이 정부 지원과 가성비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밌
-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로봇 확장 중
- 올해를 상업화 양산 원년으로 목표로 함
-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750억 위안(약 15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
- 중국 정부는 세금 감면,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 예정임

AI 로봇 경쟁, 클라우드·센서 기술이 승부 가른다

24.5.29 한국경제

- MIT 명예교수 로드니 브룩스는 AI 로봇의 핵심 기술로 시멘틱(의미 기반) 센서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꼽음
- 로봇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차세대 통신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
-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완전 무인 공장 실현 계획을 발표
- 삼성전자는 2029년까지 6G 통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Q. 로봇 사업 추진 전략은?

- 제조, 서비스, 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MECA, AI 등 핵심 기술을 지속 축적 고도화해 로봇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
-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우선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해 미래 로봇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예정
-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휴머노이드와 같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인 오준호 교수가 단장을 맡음
- 향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 업체 대한 투자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

현대차 & 보스턴다이나믹스

Q. 웨이모 상업화 지연 이유는?

- 웨이모는 현재 LA시내에서 상업용 로봇 택시 운용 중
- 모셔널은 상업용이 아닌 베타 프로그램의 일환
- 현재 파일럿을 라스베이거스, 피닉스에서 시험하는 중임
- 로봇 택시 상업화 시점은 26년이 목표

Q. 보스턴다이나믹스 IPO 일정 및 계획은?

-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고영,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도약!

주요 내용

- 고영테크놀로지는 AI 기반 의료 로봇 및 3D 검사 장비를 개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임
-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며, FDA 승인 이후 3월부터 미국 병원에 출하 예정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 예정
- 올해는 생산 확대, 직판 전략, 소모품 및 유지보수 매출 증가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의료 로봇 시장을 선도할 계획임

로봇 기술

-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된 로봇임
- 단순한 로봇을 개발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저가형 로봇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움
- 둘째, 로봇의 정교함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나 독일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 저희는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 고도화된 로봇을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
- 그 가운데에서 특화된 로봇이 지능을 갖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분야에 만 R&D와 투자를 진행함

#글로벌 시장

- 미국, 일본, 중국 합하면 뇌수술 로봇 시장만 놓고 봐도 6~7조원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이 가장 궁금할 부분일 텐데, 현재 1437개 병원이 대상
- 일본은 PMDA 신청을 완료했으며, PMDA는 일본의 식약처
-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병원 수가 더 많으며, 총 1750개 병원이 있음
- 중국과 유럽은 사전 임상을 요구하는 경우 많아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하이젠알앤엠,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의 수혜

주요 내용

-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
- 여러 대기업들과 협력 및 추가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진행 중
- 현재는 범용 모터 매출이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서보/로봇 품목 매출이 이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
- EV 관련, 동남아향으로 소형 트럭 공급하는 인도 업체들과 JV를 맺어 모터 등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출 목표

#회사 경쟁력

- LG모터 부터의 60년 업력을 기반으로 레퍼런스가 알려져있음
- 다수의 고객사 보유와 52개의 국책과제 참여 중
- 추가로 세이프티 레벨3 라고 하는 안전 인증이 있음
- 인증을 받은 국가는 6개국 뿐임. 이스라엘 1, 유럽 2, 미국 2, 일본 1
- 당사가 2년 간의 인증 절차를 마치면, 전 세계 7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것
- 이러한 선제적인 작업들을 통해 타 업체들보다 앞서나가고자 함

Q. 엔비디아 로봇 관련 코멘트가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로봇 개화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임
- 제어 이론은 AI가 접목되면서 거의 게임 끝난 수준
- 남은 게 하드웨어 발전 부분임
- 현재 액추에이터도 없고 몸통도 아직 미완성 단계임
-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올해부터 발전이 본격화될 것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에스피지, 레인보우와의 동행

주요 내용

- 올해 레인보우로보틱스로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기대
- 레인보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감속기를 당사가 공급중
- 4족로봇에는 모터와 감속기를 소형화해 액추에이터 형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여 수익성 확대 기대
- 현재 SDC, LGD 해외 공장에 사용되는 해외 업체 감속기 A/S 물량을 당사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 위해 협의 중

#로봇용 감속기

- 이전의 기어드 모터와 차이가 있음. 힘+속도+위치 제어
- 로봇용으로 들어갈 감속기는 높은 정밀도를 요함
- 일반 자동화 감속기에는 15arc min, 유성 감속기가 3~5arc min, 하모닉 기어가 1arc min
- 레인보우로보틱스 향으로 서보 모터와 감속기를 소형화 계획
-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게 올해 감속기 쪽 핵심적인 내용
- 올해 160~180억원 정도의 매출 예상

Q. 매출 기준 하모닉, 리더 드라이버가 각각 1,2위, 이들 대비 경쟁력은?

- 해외 업체는 A/S 대응이 늦음
- 우리 판가는 Leader Driver와 비슷하나 판매망은 빈약함
- Leader Driver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우리도 보조금 받으면 경쟁력 더 강화될 듯
- 하모닉을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면 하모닉, Nidec Shimpo, Leader Driver 순서
- 당사 품질은 현재 하모닉과 Nidec Shimpo 수준으로 올라옴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씨메스, 물류 자동화에 앞장서는 Physical AI

주요 내용

- 현재, 물류, 자동차, 신발,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 올해 메인 매출 비중은 물류 솔루션이 될 전망. 향후, 다른 산업군에도 수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곳에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비료 회사향 해외 고객사 확보도 추진 중

기술 개요

- 동사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임
- 사람의 눈처럼 대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3D 비전 기술
- 눈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뇌처럼 유연한 판단을 하게 하는 AI 및 분석 기술
- 분석을 바탕으로 로봇을 사람의 팔처럼 유연하고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틱스 기술
-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세 가지들 중 하나 정도의 전문성 보유

주요 고객사

- 물류 쪽에서 물동량 1위인 쿠팡과 협업 중임
- 그 외에도 CJ대한통운과 같은 대기업 물류 계열사, 대형 제조사 등
- 제조 솔루션에는 현대 자동차 생산 공정 쪽 비정형 로봇 자동화 협업중
- 검사 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향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음

Q. 로봇 암을 만드는 업체는 중국이 가격경쟁 우위가 있지 않은지?

- 국내에 중국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음
- 로봇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함
- 레인보우와 두산의 성능이 충분함
- 사용하다가 문제 발생 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함
-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로봇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함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티로보틱스, 검증된 AMR 로봇

주요 내용

- 지난 12월 미국 내연기관 업체 C사와 신규 공급계약 체결
-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AMR 로봇의 매출 비중이 진공 로봇과 비슷할 정도로 성장, 수익성 또한 AMR 로봇이 더 높기에 향후 실적 기대
- 올해 5월 가동 목표인 FORD의 켄터키 1공장이 2~3월쯤 마무리 예정
- 올해 연간 가이드런스 매출 800~1,000억원, 영업이익 하이싱글

핵심 경쟁력

- 500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을 수행한 AMR 로봇 업체는 글로벌리 당 사밖에 없음
- 반도체 분야에서도 장비 공급중. 주력 매출은 아님
- 글로벌 고객사로는 삼성디스플레이, LGD, BOE, CSOT, VISIONOX, SHARP, SK 등이 존재
- AMR 부분에서는 일단 SK만 표기되어 있는데, 최근 LG그룹 계열사와 북미 자동차 업체가 추가되는 등 여러 고객들을 보유함
- 또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미국 진출 할 예정, 당사와 협업 중

Q. 12월 신규로 납품하는 북미 자동차 업체의 향후 납품 규모는?

- 해당 회사의 북미공장으로 납품, 자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 AMR 제품이 들어감
- 고객사가 워낙 크기에 물량도 클 것으로 예상
-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 북미에 공장을 많이 지을 예정
- 당사의 대규모 수주 래퍼런스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
- 올해 수주 관련 소식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월 20일 노다지IR 주관 컨퍼런스콜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유일로보틱스, 흑자 나는 로봇 회사

주요 내용

- 로봇, FA 자동화 장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로봇은 직교, 협동, 다관절 세 가지를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 공정 자동화하고 있음
- 관제 플랫폼, 생산 실행 관리 시스템, 로봇 클라우드 관제 사업 영위
- 실적은 올해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해외 투자로 인해 자동화 사업부 호조로 다시 좋아지고 있음
- SK ON과의 아직 가시적 협업은 없으나,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SW 경쟁력

- 원천 기술 확보에서, 로봇에 대한 감속 기술이나 제어 기술, 로봇 클라우드 기술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음
- 빈 피킹(Bin Picking) 기술이나 AI비전 기술, 최적 자동 경로 생성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디지털 트윈 로봇 구현 기술 등등 개발 중

#SK관련 내용

- 로봇에서는 직교, 다관절, 협동 로봇 하고 있음
- 각각의 로봇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러 있지만, 이 세 가지 로봇을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은 당사가 유일함
-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가 올해 6월 말에 투자, 상장은 7월에 됐고, 내년 7월 18일까지 약 1년간은 보호 예수로 묶여 있는 상태
- 사회 구성 현황은 지난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SK쪽 이사들 들어옴
- 유일로보틱스 사내이사가 3명, 그리고 SK의 비상무 이사가 3명, 사외이사 2명, 그리고 SK로부터 오신 감사가 1명, 총 9명. 유일측이 3명, SK측이 4명으로 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섹터 애널리스트 REPORT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 / 25.01.10

변방국 로봇의 개화는 중소형주로부터

- 유동성과 수출 증가율에 따라 중소형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 혁신과 생산성 개선이 핵심 테마로 떠오름
- AI와 로봇틱스의 융합으로 산업용-협동로봇이 성장 중이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국내 로봇 산업 확산의 신호탄이 됨
- 신한투자증권이 로봇 관련 유망 중소형주로 씨메스, 클로봇(소프트웨어), 하이젠알앤엠(하드웨어), 엔젤로보틱스, 피앤에스미캐닉스(의료 로봇)를 선정

삼성증권

강희진 연구원 / 25.01.6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 재점화

-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 확보 후 '미래로봇추진단' 신설, 국내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급증
-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기술은 정교한 손 기술과 복잡한 동작 구현, 글로벌 경쟁 심화
- 하이젠알앤엠(액추에이터)과 에스피지(정밀 감속기)가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과 연계된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주목받음

iM증권

이상수 연구원 / 25.01.02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로보틱스

- 2024년 12월 31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로 늘려 자회사로 편입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
- CES 2025를 앞두고 로봇 테마 투자심리 개선, 그러나 TESLA, FIGURE 등 경쟁업체 대비 기술력과 시장 대응 속도가 변수
-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개발로 감속기, 액추에이터 등 부품업체(에스비비테크, 에스피지 등) 수혜 기대되지만, 부가가치 크지 않을 가능성 있음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 24.11.19

2025 OUTLOOK : 과도기

- 2024년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와 로봇 AI가 핵심 키워드였지만, 협동-물류로봇 등 기존 분야는 레거시 취급되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정체되며, 주가도 조정받음
-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
- 레인보우로보틱스를 TOP PICK으로 선정, 로보티즈도 관심 종목

현직자 미팅노트

현직자 소개

일자 : 2월 초순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 로보틱스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의 외관 및 프레임 등 기구부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 최근 투자자들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체감하시는 업황은 어떤가요?

요즘 AI나 그래픽카드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많아진 게 느껴집니다. 특히 AI는 자율주행이나 물체 인식 같은 걸 가능하게 해서 로봇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그래픽카드는 고성능 연산이나 시뮬레이션을 쉽게 해줘서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 어떤 산업에서 로봇이 가장 활용이 빨리 되실 것으로 보실까요?

로봇은 반복 작업, 정밀 작업, 그리고 위험 작업에 매우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자의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자 대체 로봇'이 가장 빠르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 예를 들어 정밀 수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 테슬라, 엔비디아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부분에서 관심 갖을 포인트가 있을지?

클라우드 로보틱스, 에지 컴퓨팅 로보틱스, 컨트롤러리스 로보틱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봇마다 개별 제어기를 탑재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5G 이상의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제어기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이슈이다 보니 이러한 개발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로봇 개별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 기업들도 유망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